



걸림없는 기풍으로 '일발선풍' 확립

월정사·본지 공동 주최... '한암사상연구' 학술세미나 성료

제3회 한암대중사 수행학림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평창 월정사(주지 정법)에서 개최됐다. 월정사와 현대불교신문사(대표이사 해월)가 공동주최한 행사에서 한암사상연구 학술연구세미나도 13일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가 '선종사 지평에서 본 방한암 선사'를,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한암의 일발선: 장종과 교어의 마찰과 윤회'를, 김중진 교수(동국대 국문과)가 '한암 선사 참선곡의 문학적 특성과 문화사적 의의'를, 윤창화 민족사 대표가 '한암의 서간문 고찰'을 각각 발표했다.

글·사진=남동우 기자 dwnam@buddhanews.com

'간화'와 '반조' 우열 없이 활용

신규탁 교수 (연세대 철학과) -선종사 지평에서 본 방한암 선사

한암 선사는 '간화(看話)'를 하거나 '반조(返照)'를 하거나 어느 수행을 하거나를 막론하고 여실하게 참구해 지해(知解)를 쓸어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간화'와 '반조' 사이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체의 사량분별 즉 지해(知解)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화두'를 간(看)하는 선을 수행하게 하다가 그에 완전하지 못한 수행자에게는 '반조'하는 선 수행을 하게 한 것이고, 반대로 '반조'하는 선 수행을 하다가 그제 제대로 되지 못한 자를 위해 '화두'를 간하는 수행을 하게 한 것이다.



한암 선사는 '반조'와 '간화' 모두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무자(無字) 화두'만 들고 강조하지 않는다. 당대(唐代)와 다른 송대(宋代) 선(禪)의 특징은 '지해'를 떨쳐버리는 수행법을 개발한 것이다. 그것이 '간화'이다. 그렇다면 아무 화두나 간하면 됐지, 하필이면 '무자 화두'인가? 이 점에 대해 한암 선사와 그의 스승 경허(敬虛)는 '반조'하는 선 수행을 하게 한 것이고, 반대로 '반조'하는 선 수행을 하다가 그제 제대로 되지 못한 자를 위해 '화두'를 간하는 수행을 하게 한 것이다.

'참여와 침묵·흥금과 파예' 응축

고영섭 교수 (동국대 불교학과)-한암의 일발선: 장종과 교어의 마찰과 윤회

한암의 일발 기풍은 바로 이 자기의 가슴속에 우리나라의 언어(胸襟)와 고삐를 정확히 잡아당기는 언어(把握)의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으로 그는 천고 속으로 '물러나며(藏蹤) 참여할 수 있었고 삼촌으로 '나아가며(巧語) 침묵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침묵과 참여를 아우른 실림살이를 한암의 일발선 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종'과 '교어'가 마찰을 넘어 일발(一發)로 윤회되고, '흥금(胸襟)'과 '파예(把握)'가 응축을 넘어 일발로 확산되는 역동적 지점 위에서 한암의 일발선풍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암은 '법'을 '묘법'으로 열어감으로써 법



화와 행리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고 그 스스로 그러한 모습대로 살았다. 그의 실림살이는 흥금과 파예의 선풍을 넘어 활발한 일발의 선풍으로 응축되고 확산됐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가슴 속에서 우리나라의 흥금의 언어와 고삐를 당길 때를 정확히 하는 파예의 언어를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와 침묵, 흥금과 파예의 두 축이 응축되는 한암의 실림살이는 다시 무소유와 무집착과 무분별에 입각한 일발선풍으로 확산됐다. 그리고 법화(法華)의 수렴은 다시 장종과 교어의 윤회를 통해 일발 선풍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암 스님 일대기 그린 판소리 '한암가' 명명나는 장단에 어깨춤 절로

"오대산이 어찌란 말이나 오대천이 어찌 활고한 마리 확이되어 창공에 노니시며 무상한 몸 소진하여 원하고 원하니다 조계일적 사자후가 만만대 전제하고 대용현전 부춘계축 항사자경 전해지소서." 결국한 남도소리가 월정사 대법륜전을 휘감아 돈다. 조영재(판소리 5호 이수자) 명창의 소리에 '일씨구' '잘하다'는 추임새가 절로 나온다. 이규호(중앙대 판소리과 교수) 고수의 장단에도 신명이 묻어난다. 그는 영화 '천년학'에서 송화의 고수 역할을 맡기도 했다. 한암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판소리 '한암가' 완성이 처음 선보였다. 스님의 일대기를 판소리로 만든 것은 이례적이다. '한암가'를 만든 이는 장용철 화백. 그는 '참선곡'을 보고 판소리 장단에 맞춰다 싶어 2005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 장용철 화백은 "40분 분량으로 한암 스님의 선사상을 보이기에 무리"라며 "일종의 맛만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판소리의 유유와 해학은 일종의 방편설"이라는 그는 "역대 조사스님들의 일대기도 판소리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암사상연구 학술세미나 개최에 앞서 이규호 명창이 '한암가' 원형을 선보이고 있다.

"불교가사 제작 전통적 방법 고수"

한암 <참선곡>의 자리는 불교가사의 작시원리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대중의 수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 있다. 동안거에 참여한 대중을 넘어서 일반 대중들에게 접근의 진리가 전달되도록 기존의 엄밀권장의 가사에 익숙한 시문법을 활용해 화자와 청자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암은 수행에서 보여주는 선사로서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불교가요 제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참선수행의 노래를 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사라는 형식적 면모와 참선의 소의경전에 충실하고 있다는



내용적 측면에서 모두 그러하다. 근대불교지성인으로서의 한암의 실천적 면모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전통적인 방법을 택하고 이를 고집스럽게 지키고 외풍에 대응했다는 점이다. 그의 문학역시 문화사에서 걸출한 작품이라거나 시대를 앞서간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심결>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한 선수행의 요체를 전달하되, 대중에게 널리 전승되었던 불교가사의 여러 관습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에 충실한 마지막 불교가사를 제작하고 있다는 것이 실상가 가까운 평가일 것이다.

"깨달음 후 수행 더욱 중요" 강조

한암은 경봉에게 보낸 두 세 편 서간에서 깨달음 뒤의 수행 즉 오후보임(悟後保任), 오후생애(悟後生涯)가 깨달기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깨달음 뒤에도 그 마음을 잘 간직하는 수행=보임을 하지 않고 방종한다면, 결국 깨달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 결과는 오히려 깨달기 이전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후수행의 방법으로써 한암은 목우행(牧牛行)을 제시하고 있다. 소가 풀밭으로 들어가면 고삐를 잡는 것처럼 망념이 일어나거나 또는 마음이 객관적 대상을 만나서 끌려갈 때



즉 그 사실을 간파하고 잡아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눈병에 걸리거나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하늘에서 공화(空花)가 떨어지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번뇌망념이 남아 있으면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던 한암은 여기서 더 나아가 '오후수행(悟後修行)' '오후보임' 이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알았다는 생각=집착이 남아 있는 한 그것은 아직 완속한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도산 자수정 108 염주

평생 행운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멸의 염주



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 이마에는 자수정을 꼭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자주 본다. 인도산 자수정의 특징은 어떠한 세공을 해도 오염되지 않는 정화수를 주기적으로 주변 자란다는 보석으로 인도인들은 영원불멸의 보석이라고 하여 부처님 보석이라고도 한다.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주 염주는 인도에서 가공해 국내에서 조립한 것으로 색상도 일정해 품위가 있다. 불멸의 보석으로 일컫는 자수정 염주는 지니고 있는 것 만으로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요묘한 뜻이 있어 출시되자 선물로도 인기며 평생 사용할 예불법구로 불자는 물론 스님들까지도 신성하고 있다. 신광사에서는 불사기금 조성으로 구입 고객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소원성취와 사업번창을 위한 100일 특별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 예방과 닥쳐올 화를 쫓는 영험!!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경에는 중생들이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가격 38,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달수 있다. 전화(02)741-4477

2007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재화막은 삼고금강저!



삼재란 음양오행에 의해 세상은 동안 일정한 기간에 액란과 환란이 오는 시기를 말한다. 삼재에는

드삼재, 목삼재, 나는삼재 각 1년씩 3년동안 수. 화. 풍으로 큰화를 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불가에서는 삼재를 소멸하는 의식으로 매년 입춘날 대부분 사찰에서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드린다. 삼재에는 나이에 따라 일발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다. 삼재가 든 사람들 중에는 하늘일 마다 일이 안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재물손실이 계속되고 뜻하지 않는 관재수로 법적문제에 휘말리는 등 어려운 고통이 오지만 삼재라 하여 삼재가 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재 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 중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다. 삼재를 완벽하게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환란을 모면하게 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도산(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닥쳐올 화를 미리 막아주며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가로 5cm 폭 2cm로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된다.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35,000원 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흠 福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정해진 새지갑으로 사업성공! 평생부자!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 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들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리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흠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흠 복지갑은 사용했던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당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행통의 비방인 반장을 손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 소가죽에 金·銀나노 처리까지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흠지갑을 사용하신분의 명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장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남성용 옴마니반메흠 지갑

여성용 옴마니반메흠 지갑